

문인 6명이 풀어놓은 '그시절 광주'

광주문화재단 모노그래프
'돌아보면 그곳이...' 발간
광주 문화자원 재해석·소개
사진작가로 안희정 씨 참여

"몇 명이 모이기만 해도 감시의 눈초리를 의식해야 했고, 학교에도 안기부 직원, 정보과 형사, 짝새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 무등경기장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함성을 질러대도 상관없는 유일한 합법 공간이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로 시작하는 슬픈 곡조의 메아리가 운동장 가득 울려 퍼지곤 했다. 해태가 이겨도 저도 '목포의 눈물'은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김호균의 '원형경 기장, 그안과 밖의 경계' 중에서)

광주 무등경기장(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유동 오리탕거리, 무등산의 지산유원지, 광주 천변 발산마을...

광주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공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깃들여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의 기억이 드리워진 곳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위의 장소들은 여전히 특정한 의미의 공간으로 환기된다. 어쩌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야기와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 모른다.

광주문화재단이 발간한 광주모노그래프 4편 '돌아보면 그곳이 있었네'는 여섯 명의 문인들이 기억 보관소에서 퍼올린 이야기다. 이번 책은 광주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기억하고 소개하기 위해 기획했다.

참여한 이는 객재주, 고재중, 공선욱, 김선정, 김호균, 이영진 등 6명의 문인. 이들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광주의 속살을 새로운 기억으로 풀어놓는다. 안희정 씨가 사진가로 참여했다.

객재주 시인은 유동의 달밤 시절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기출과 빈곤, 방향의 시기였던 유동 시절에 그는 "실존적 부조리에 대한 몸부림만으로 허덕이며 울분을 터뜨리고 황음에 빠지고 폐허의 무저갱만 떠다녔다"고 회고한다. 좌절과 어두운 기억과



객재주 시인 '발산마을'



고재중 시인 'YWCA'

아울러 어느 날 시인이 마주했던 민중문화운동의 물결은 한 시대의 기록과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김호균을 통해 만나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이야기는 생동감이 넘친다. 옛 무등경기장의 서사에는 개발에 밀려나야 했던 이들의 삶과 야구장에서 울고 웃었던 호남인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

이영진 시인은 광주교도소를 소환한다. 유년에 목격했던 동명동 시절의 광주교도소와 법원 그리고 광주 혁명가 등의 이야기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그려내고 있다.

공선욱 소설가는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이야기한다. 그의 글 '햇빛 쏟아지는 날들'은 5·18이

라는 거대 서사 언저리에서 마주해야 했던 상처와 고통을 이야기한다.

"무등산 가는 버스를 타고 원호사까지 가면 거기 산장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때(그는 굳이 5월이라고 말하지 않고 3년 전 80년 5월을 '그때'라고 말했다), '무기 회수령' 떨어지기 전에 산장 옆 바위 밑에 총을 숨겨놓았다고 말하자마자, 그날의 행선지는 바로 무등산으로 정해졌다."

6명의 문인들이 펼쳐놓는 6개의 공간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으로 담아낸 안희정의 작품은 보는 맛을 선사한다. 서정과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멋진건 이미 해봤고 웃음 보여줄 차례죠"



다음주 개봉... 영화 '스위치' 권상우

연예계 '스캔들 메이커'에서 매니저로 인생 뒤바뀐 역할

"코미디 장르 자신있는 분야 사람들 웃기는 일 즐거워"

영화 '탐정' 시리즈에 '히트맨', 드라마 '위기의 X'까지. 최근 배우 권상우의 행보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는 '코믹'이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과 만나고 있는 그는 개봉을 앞둔 영화 '스위치'에서도 하루아침에 톱스타에서 매니저로 인생이 뒤바뀐 박강 역을 맡아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27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권상우는 "처음 대본을 보고 너무 재밌었다. 이 역할을 나 말고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솔직히 자신 있었다"고 말했다.

"코미디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웃기는 게 너무 즐겁기도 하고요. 너무 코믹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지만, 사실 총각 시절에 멋있는 건 다 해봤잖아요.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권상우가 연기한 박강은 '섭외 0순위' 배우이자 연예계 대표 스캔들 메이커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하무인 톱스타지만 남모름 불안과 외로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는 인물이다.

권상우는 "주변에 박강 같은 후배가 있다면 충고를 하기보다는 안 보고 살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사실 저도 남들이 보기에는 유명한 배우이고 부족한 게 없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으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박강도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한 삶을 사는 톱스타지만 그안에 공허감이 있죠. 저는 보면서 '저 사람 외로워서 그렇다'고 느꼈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외롭고 쓸쓸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미워 보이진 않았어요. 충분히 공감하며 연기했습니다."

데뷔 3년 차인 2003년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와 '말죽거리 잔혹사', 드라마 '천국의 계단'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그는 극중 톱스타의 삶을 재현한 방식에 대해 "재미를 주기 위해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전혀 다르진 않다"며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

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자신밖에 모르던 박강은 크리스마스이브 저녁, 수상한 택시에 올라타면서 첫사랑 수현(이민정 분)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 새 삶을 살게 된다.

권상우는 "처음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영화"라며 "시사회 때는 눈물을 흘리며 봤다"고 말했다.

실제 두 아이의 아빠인 그는 "제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다. 아빠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이들은) 삶의 원동력이자 비타민"이라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권상우는 내년 데뷔 23년 차를 맞는 '중견 배우'다.

그는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다"며 "연젠가는 나를 찾아주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니 신인 때보다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욕심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남는 건 작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촬영) 현장 의자에 앉아서 다음 장면 준비하고 있을 때거든요. 정말로요. 지금은 많은 분이 볼 수 있는 작품을 찍는 게 최고 목표예요."

'스위치'는 다음 달 4일 일반 관객과 만난다. 한국 영화 중 새해 첫 개봉작이다.

권상우는 "저에게는 선물 같은 작품"이라며 "즐겁고 행복한 가족영화다. 연초부터 '해피 바이러스'를 꼭 펴뜨릴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합뉴스

ACC로 모여라! 어린이 겨울탐험대

내년 1월 8일~2월 26일 겨울방학 프로그램 풍성

ACC 어린이창작실험실과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모여라! 어린이 겨울탐험대'를 주제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3년 1월8일부터 2월26일까지.

ACC재단은 올 겨울방학에는 세 가지 주제 총 9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제는 '놀이로 탐험', '예술로 탐험', '이야기로 탐험' 등이며 참가자들은 아시아 문화 속에서 겨울을 탐색하고 디지털 기반의 예술창작 활동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22년 신규 개발된 기술융합프로그램도 시

범 운영된다. 다양한 디지털 창작도구를 활용하여 만든 작품을 메타버스에서 공유해보는 'Hi Digital, Be My Hero!' (안녕 디지털, 나의 영웅이 되어줘!)는 초등학교 3~5학년 1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

아울러 현대무용가 흥승엽과 함께하는 '몸으로 예술놀이', 기획전시 '용왕을 만나러 가는 길'과 연계해 코딩과 게임으로 스마트 블록 로봇을 창작해 보는 '용궁으로 간 블록 로봇' 등 어린이의 창의적 활동을 견인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유료로 펼쳐질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